

굴 육

형부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나는 아직도 그 진의
를 알 수가 없다.

그 무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야릇한 애정과 염오(증오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와 열정과 냉혹에 얼크러진 그들의 결혼 생활 속에서 시달
리다 쓰러진 아내 —— 즉 나의 언니에 대한 사랑과 다시 얻기 어려운
것을 깨뜨려 버린 애석과 뉘우침에서였음인지, 항상 자기 자신이 되
지 못하는 자기의 저주스러운 성격을 자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일찍이 그토록 열정적인 사랑을 기울였던 그 아내에의 추억으로서
는 너무 감동이 부족했고 단순한 자조로서는 변명이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지나가는 가을비가 유리창에 맺혔다간 줄을 그어 떨어지며 퍼지는
것을 쳐다보며, 나는 방심한 듯이 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삼남매의 막내인 나는 언니와 십여 세나 나이의 차가 있었다.

학교 때 전교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언니에게 맹렬한 연애를 하

여 결혼을 한 형부가 결코 훌륭한 남편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 언니의 그 기울어져 가는 미모에 어딘지 우수가 깃들고, 그 명랑하고 교만하리만큼 각듯했던 성격이 나릿해지고 풀이 없어져 가던 것이, 이윽고 삼십이 못 되어 이내 죽어 버린 것조차 그 남편의 탓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 이러한 사실이 종합되어 형부에 대한 나의 감정은 자연 좋을 수가 없었으나 그 언니가 옛사람이 된 지금 언니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형부와 막상 마주앉으니 일종의 친애감이 가져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실로 애증(愛憎)이란 감정의 양단(兩端)이요, 한끝을 잡으면 자연 또 다른 한끝도 붙어 오는 것인가 보다.

—— 귀란 씨 댁에서, 시굴로 소개를 하시던 핸가 봅니다. 소위 대동아 전쟁 때지요.

나는 직장에서 일인 과장과 다툼 끝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세번 째 실업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장이라는 자가 대학 때 두 해 아래인 요샛말로 머저리 같은 자식이었는데, 이자가 동창이라 하여 제딴은 호의를 보인다는 것이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건드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나카무라 —— 과장의 이름입니다 —— 의 호의가 나에게는 불순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이 자의 호의에 나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열등감의 역반사(逆反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조 동근(同祖同根)이니 내선 일체(內鮮一體)니 하던 때지요.

나카무라가 한층 윗길에 서서, 살아서 사색하고 행동하는 구체자(具體者)인 ‘나’라기보다 조선인이라는 관념 앞에서, 경멸과 연민과 위압을 내포한 호의를 베푸는 것에 나는 치가 떨리는 것 같은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나의 심각한 반감과 증오라는 것도 나카무라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고 나카무라로써 대표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것 이었겠지요.

옥란은 그 때 설희를 넣고 아직 해산 때를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의 결심을 들은 옥란은 눈에 보이도록 햄쓱해지며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내 얼굴을 응시했었어요.

옥란은 본시 말이 적은 대신 눈의 표정이 풍부했지요. 그 눈에는 나에게 대한 힐책과 실업에서 오는 모든 곤궁에의 공포, 이러한 것 외에 또 하나——나카무라의 얼굴에서 읽은 반대의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징용 문제에 있어서 무직자가 가장 위협을 많이 받았던 당시 옥란으로서는 그러한 감정 문제가 퇴직의 이유가 되지는 못했던 것 이지요.

그러나 나는 왈칵 얼굴이 취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옥란의 뺨을 후려갈기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나를 사랑하였으나 나를 알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옥란이가 나를 알아주었다면 그런 표정을 지을 리 만무했고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아름다운 여성이 그러한 굴욕을 참을 수 있었겠어요? 허나 이런 말도 우스운 말입니다.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만 내가 대체 무업니까? 나를 알아 달라는 것은 나와 같이 미치광이가 되란 말이지요.

하여튼 나는 그가 굴욕을 참는 것은 감정의 탄력이 예리치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옥란이가 그렇게 헌신적이 아니었던들, 오히려 나는 티격태격하는 데서 어떤 자극을 받아, 그토록 영혼의 무력을 느끼지 않아도 좋았을 는지 모를 일입니다.

옥란은 이 무능하고 성격 파탄자인 남편에게 바가지 한 번 긁은 일이 없고, 한껏 한다는 항의가 그 표정이 풍부한 고운 눈을 크게 뜨고 말없이 이쪽을 응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옥란에게 열렬한 연애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애란 감정같이 이기적인 것은 없

어요. 따라서 이 감정같이 매정하고 냉혹하게 변하기 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지음 옥란의 사랑은 이미 나에게 있어 하나의 기반(羈絆)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지금 와서는 나는 옥란의 굳은 의지 —— 행복에의 의지가 그런 무감각이라고도 할 만한 인종(忍從)을 감히 하게 하였다는 것을 참작도 합니다만, 나는 당시 옥란을 너무도 감정과 성격을 가지지 않은 아름다운 인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이든 그저 그대로 반영시키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옥란을 볼 때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바른 거울에 비친 자기가 아니고 코가 찌그러져도 보이고 눈이 짹짜으로 빠뚤어져도 보이는 수은이 고르게 칠해지지 않은 거울로.

그러나 나로서는 이러한 동양 여인의 미덕을 구비하다시피 한, 그러니깐 구체적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그에 대한 불만이 항상 가슴에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이 불쾌한 매연(煤煙)이 섞인 안개 같은 막연한 불만은 가끔 발작적인 잔인성이나 신랄한 비꼼으로 굳어졌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산후 백일이 가깝도록 해산때를 벗지 못하는 옥란이의 백지 같은 뺨에 이내 산호빛으로 홍조가 떠 올랐습니다.

옥란은 말없이 속눈썹이 긴 눈을 내리깔고 칭칭거리기 시작한 어린것 입에 억지로 젖꼭지를 갖다 대었습니다.

무서운 의지 —— 지금 생각하면 무성격하다고 생각하던 옥란이 얼마나 무서운 의지의 사람이었던지.

기묘한 일입니다만 옥란은 연애 감정을 죄악시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 자기들의 결혼인 만큼 그 준열한 자존심이 파탄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겠지요.

실상 옥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옥란을 칭찬했지요. 알뜰하고 아름답고 온순하고 얌전하고 남편을 잘 받들고…….

나는 너무 반응이 없는 옥란의 태도에 김이 빠져 옷을 입은 채 그 자리에 쓰러져 누워 버렸습니다.

눈을 감았으나 옥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또 불쾌감을 누를 수가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가 가슴을 막습니다. 이 구원이 없는 자기 불만이 연상을 불러 눈앞에 앉아 있는 옥란이가 또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불쌍한 옥란, 아름다운 옥란, 숭고한 옥란—— 갑자기 사랑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눈을 떠 보았습니다. 옥란은 어린것을 안고 눈을 내리감은 채 오롯이 앉아 있습니다.

고뇌의 마리아—— 그러나 나의 눈에는 옥란의 그 인종(忍從)의 태도가 일종의 시위로 보였습니다. 고뇌의 시위라고 할까요?

아아 옥란은 왜 그런 신념을 가졌었을까요? 아름다운 옥란의 인종은 남의 칭송과 감탄을 샀을는지는 모르나, 자기를 죽이고 상대편의 마음을 닫아 버리고 부도(婦道)라는 미명 아래서 자기를 고집하여 그 미덕조차 짓밟아 버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자기를 비참히 하고 남편인 나에게는 불만과 권태밖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허나 내가 오늘 귀란 씨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옥란의 성격 비판이 아니고 옥란과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에피소드입니다.

—— 빨아 다린 적삼에 동정을 달고 있던 옥란은 견반을 밀어 놓고 부리나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늘을 듣지 채 이십 분도 못 되는데 이번으로 세번째입니다.

세 살 난 여희는 엄마 옆에 앉아서 가위로 썩둑질을 하고 갓난 설희는 책으로 얼굴을 덮고 아랫목에 누워 있는 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옥란이가 돌아와 바늘을 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옥란은 채 삼 분이 못 가서 또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심해? 엊저녁에 병원엘 가랬지 않우.”

나는 얼굴을 덮었던 책을 난폭하게 제끼며 상반신을 일으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설희가 소스라쳐 놀라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옥란은 부리나케 어린것을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허영심은 —— 네장!”

나는 씹어 뱉듯이 말하고 다시 벌떡 누웠습니다.

옥란이는 설사를 몹시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해서야 그 참을성 많은 옥란이가 앓는 소릴 다 했겠어요.

그러나 옥란은 아무리 내가 병원에 가보라 하여도

“속치마가 더러워서…….”

라는등

“동정을 갈아 달구.”

라는등 하고 쪄쫄매어 가며 몸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세 살과 백날잡이 —— 한참 손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손대기 하나 없는 홀아씨로 사실 병원에 갈 여유도 없긴 하였지만 나는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결벽을 부리려는 그가 밍살머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반 석죽도 간신히 꾸려 가는 형편에 속치마가 더러우면 어떠냐. 결벽도 이런 경우에는 허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나 옥란은 속옷을 깨끗하게 하고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것은 환자로서의 예의라고 기식이 엄엄하다시피 하면서 속치마를 빨아 다려 입고야 시간이 끌지도 모른다고 옆집 아이 보는 계집애를 빌려 설희를 업혀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옥란은 오정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희가 배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하고부터 신경이 다쳐져서 하는 수

가 없었습니다. 옥란의 결벽은 그의 병과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나는 쩔쩔매면서 다리미질을 하고 동정을 갈아 달고 한 것이 다 병을 악화시키려는 고의적인 행동같이 느껴져 맙기만 하였습니다.

불행은 나의 성격을 그렇게도 이즈러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오후 한 시가 지날 무렵 대문 소리가 나기에 부리나케 잠이 든 시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옥란이가 아니고 옆집 아이 보는 계집애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

내가 잠이 든 줄 알았던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소리를 꽭꽥 지릅니다.

“응? 왜 너 혼자 왔니?”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요. 어서 병원에 좀 와 주시래요. 얼른 좀 와 주시래요.”

“뭐 ?”

“글쎄 얼른 좀 오시래요.”

아이는 고집이나 하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갈팡질팡 윗막이를 걸치고 아이가 가리켜 준 병원(개인 병원 치료비가 비싸다고 옥란은 의전 병원에 갔던 모양입니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옥란은 전염병실에 입원이라기보다 수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메바성의 이질의 혐의로.

야단스러운 소독을 거친 후 나는 입원실에서 그와 마주앉았습니다.

옥란은 나를 보자 울먹울먹한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띠웠습니다.

“왜 대단하우 ?”

“아뇨, 뭘 집에서보담 되려 훨씬 난 것 같아요.”

“.....”

난 것 같기는커녕, 그리고 누워 있는 걸 보니 아주 중태 환자로 보입니다.

나는 가슴이 찌르르 하였습니다.

“큰일났지요 ?”

“뭘 끝 낫겠지.”

“아니요. 입원을 하라니깐 말요.”

“허지 뭐.”

옥란은 병 때문에 더욱 커지고 맑아진 눈을 크게 뜨고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자기 말에 허위가 떠 있는 것 같은 자의식에, 그녀의 시선을 슬쩍 피하며,

“왜 ?”

하고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입원하란 말이에요. 병이 난 후두 병균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확인이 있구야 퇴원을 시킨대요.”

“.....”

“적어도 이 주일 !”

“.....”

“까짓 이질쯤으로. 또 이질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

옥란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두 의사 하라는 대루 해야지.”

내 내부에서 무엇이

‘거짓말 ! 거짓말 !’

하였습니다.

실상 세 살짜리와 갓난이가 있는 집에서 어미가 이 주일이나 비워 보세요. ——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는 일본 사람이니깐 이질을 무서워 하지만 우리 조선 사람은 까짓것 일없어요. 뭐.”

“그리고 입원 보증금이 칠십 원이라나요?”

옥란이는 쏟아나 놓듯이 지껄였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일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칠십 원, 칠십 원.’

하고 외어 보았습니다.

칠십 원이면 당시 거금입니다. 갑자기 그런 거금이 생길 리 없습니다.

옥란은 내 안색을 읽는 듯이 잠시 말을 끊고 나를 응시하다가

“그것보다도 난 여기 있기가 싫어요. 여기 있다간 정말 병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병균이 없다는 확증이 없으면 내어 보내 주지도 않는 대요.”

하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갑자기 음성을 낮추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난 여기 있기가 싫어요. 여길 나가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요.”

“방법?”

“네 아까 간호사가 저런 것을 갖다 놓구 갔어요.”

하고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조그마한 상자를 눈으로 가리키고,

“검변을 하겠다구 저기 변을 좀 받아 놓으라구요.”

“그래.”

“난 이질은 아니라구 생각하지만 말이에요. 혹시나 혹시나 또 의심스러우니 말예요.”

“.....”

“당신 오늘 저녁까지 저기다 당신의 변을 좀 담아다 주세요. 네?”

나는 좀 전에 아이가 혼자 뛰어들어왔을 때보다 더 가슴이 내려앉

았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말이 때묻은 속치마를 입기조차 꺼리는 옥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나를 이런 충충헌 데 두실 작정이세요?”

옥란은 응석조로 말하고 이마 너머로 나를 흘겨봅니다.

실로 오랫만에 보이는 교태였습니다.

나는 가슴 어느 구석에서 설움이 소리를 내고 터지는 것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그녀를 쓸어 안았습니다.

“걱정 말어 옥란! 아무 걱정 말구 이 주일만 여기서 쉬어요.”

그녀는 내 품안에서 발발 떨면서 어린애같이 도리질을 하였습니다. 백랍 같은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실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곧 돌아가서 보증금 마련을 해 올게. 아무 염려 말구 기다리우.”

나는 부드럽게 말하고 그녀의 눈물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동시에 내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나의 발은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습니다만 장담은 하였으나 앞이 깜깜합니다. 제일 보증금…… 젖먹이…….

속으로 그럴싸한 데를 더듬으며 집으로 달려가 우선 갓난이를 옆집 부인에게 잠깐 맡기고, 여희에게 찬밥을 데워 먹이고 그 밭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도소에 끌려 들어가는 심정으로 종로에서 포목상을 열고 있는 소학 동창을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에겐 벌써 얼마쯤 빚이 있어 얼굴이 따거운 것을 무릅쓰고 들어가니 그는 안에서 술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웬 바람인가? 어서 들어오게.”

그는 수다를 떨어 대며 손을 잡아 올립니다. 상인답게 사람을 다루는 데 꼭 익숙하였습니다.

낮부터 술도 술이려니와, 전시하에 금송아지보다도 얻기 어려운

차돌박이 편육에 술안주 약포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선 한 잔 들게.”

술을 먹고 있을 경우가 아니었지만 음식을 보니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제에기랄 시국이 이러니, 장사가 될게 뭐야.”

어지간히 술이 돈 친구는 한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건이 있어야 장사지. 내일부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중언부언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 진미가 놓여 있는 술상과 몸에 감고 있는 지르르 흐르는 주단옷과 걸맞지 않아 나는 앉아 있기가 점점 거북해졌습니다.

친구의 하는 소리가 방패막이로 들렸던 것이지요. 언제나 아쉬울 때만 찾던 친구라 재빨리 눈치챈 넋두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무리도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얼굴도 세 번이라는데 그러한 청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딴은 이 친구도 처음 내가 찾아가 궁한 사정을 말했을 때는 부탁하기도 전에 자진하여 얼마를 아주 떠다 맡기다시피 하였습니다.

그것은 소학교만 간신히 마친 그가 고등 교육을 받은 나에게 하는 일종의 복수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남의 사정을 보아준다든가 이해 관계를 떠난 친절을 베푼다든가 하기에는 너무나 상인이었습니다.

술만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눈감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셈 잡고 말을 꺼내 보았으련만 미리부터 방패를 막는 것을 보니 말머리를 내어 놓을 수 없어

“왜 그렇게 총총히 나가? 모처럼 만인데.”

하고 불드는 그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길이 유별나게 하얗게 보이고 귀가 재앵하여, 거리의 소음이 머리 속에서 울려 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길가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깨닫고 쫓기듯이 발을 움직이곤 하였습니다.

인사동에 서(庶) 당고모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있는 친척붙이로는 유일한 사람인 동시에 그래도 옛날에는 행세깨나 하던 집안 중에서 그대로 부명 듣고 사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포목상 친구보다 더욱 이 서 당고모를 찾기는 싫었습니다.

이 역시 서파(庶派)라, 완고한 집안에서 충하도 이만저만하지 않았던 까닭에 거기 머리 숙이려 가기는 정녕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울먹울먹하던 옥란의 얼굴과 옆집에 맡겨 놓고 온 갓낳은 아이가 나를 채찍질합니다.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서 등산이니 스키니 댄스니 남 안하는 것까지 하느라고 돈을 물쓰듯 해 보았던 것이…….

그러고 보면 아침에 옥란이가 속옷을 빨아 다려 입고야 진찰을 받으러 가는 것을 허영이라고 책한 것도 기막힌 일입니다.

내가 그에게 끌리게 된 것은 물론 그 드문 아름다움 까닭이지만 항상 눈같이 깨끗한 동정잇을 단정하게 맞춰 입는데 마음을 씻기는 것 같은 정화감을 받았던 것도 큰 원인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나는 새삼스럽게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서 당고모는 마침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아니 이게 웬일이요. 이 아지미를 다 찾다니.”

당고모라고는 하나 우리 종조께서 육십 가까이 나신 분이라 나보다 겨우 열 살 남짓 한데다가 살피듬이 좋아 얼른 보기에는 연상약하게 보였습니다.

포동포동 살이 찐 얼굴에 곱게 화장을 하고 볼이 좁은 버선을 신느

라고 종이로 발을 싸면서 하는 말이 빈정대는 것같이 들립니다.

“그래 아씨두 잘 있구?”

나는 얼른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그 아씨가 이러저러하니 어렵더라도 백 원쯤만 돌려 달라고——
당고모는 무얼 생각했는지 핸드백을 열어 보였습니다.

“돈은 이렇게 있긴 있어요. 허지만 지금부터 이걸루 영애 혼수감
을 사러 가기루 했어. 종로 이화라든가 하는 포목상에 어떻게 돌려
놓은 건지 경도 양단이 있다나. 물론 야미라 좀 값이 벅차긴 허지만
어떡해.”

이런 소릴 하는 것입니다.

종로 이화라면 지금 헤어져 온 친구네 집입니다.

뒷문 장사가 더 좋을 바에야 앞문은 닫을 수밖에…… 하고 차디찬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고모는 열어 보였던 핸드백을 소리를 내어 닫고 아직 버선을 끼
지 않았던 쪽 발을 또 백지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다는 자랑인지 남의 약을 올리려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
습니다.

영애의 혼수가 그렇게 바쁜 일일까?

아홉 살밖에 안 되는 그 영애는 뜰에서 고무줄 장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고모는 버선을 얹지도 끼고 나서

“시속 사람들은 병을 너무 무서워 해. 이질 같은 건 우리 조선 사
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매운 것 안 먹는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
하지 뭐.”

하고 빈정대었습니다.

나는 그 뿌연 뺨에 금방 손이 올라갈 것 같은 것을 얹지도 참고 다
시 말을 붙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길가로 나오자마자

“바가야로——.”

하는 매성(罵聲)과 함께 나는 눈앞에 번개가 번쩍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차도를 걷다가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완전치는 않은 정신으로 흔들흔들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느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호주머니에 넣었던 손이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캠퍼 주사약 상자였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옥란이가 자기 대신 변을 받아 달라던 그 상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나는 무엇에 얹어맞은 것처럼 머리에서 불이 확 났습니다.

그랬던가? 그랬던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조차 아니꼽다는 둥 말을 잊지 못하겠다는 둥 하는 사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갖게 한 것은 결국 이 상자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자를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 벌써 도피처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종로 포목상이니 당고모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은 결국 몸짓——자기 양심에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상자를 들고 방심한 듯이 서 있다가 갑자기 울음의 풍치랄까요? 그런 것이 가슴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 후에 나는 길거리에 서서 걸걸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튿날 옥란은 퇴원을 하였습니다.

변에 병균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하하…… 기적적으로 옥란의 설사는 한결 미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질이 아니었던지 모르지요.

허나 문제는 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신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옥란의 얼굴에 어린 안도의 빛이 승리의 빛 도취의 빛으로 보여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옥란은 그 희생을 완성시킨 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옥란으로서는 진실로 전염병실이 싫었고, 집에 가게 되어 어린것을 남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 것이 다행이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나로서는 마지막의 주어진 기회인 만큼 이것을 놓치고 보니 아주 남편으로서 실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부는 갑자기 말을 끊어 버렸다.

정신을 돌리고 보니 빗방울이 맷히던 창에 밤이 와 덮여 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같이 말을 토했다.

“무서운 분이에요 !”

웨이트리스가 램프를 켜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았다.

(1953. 7. 23.)